

아말감 과민증에 의한 혀의 점막 병소의 치험례

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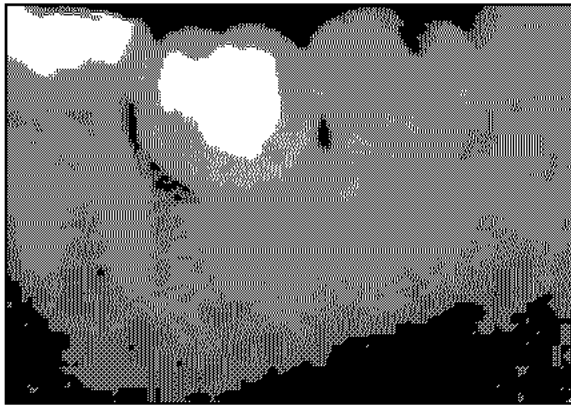
김도연, 노병덕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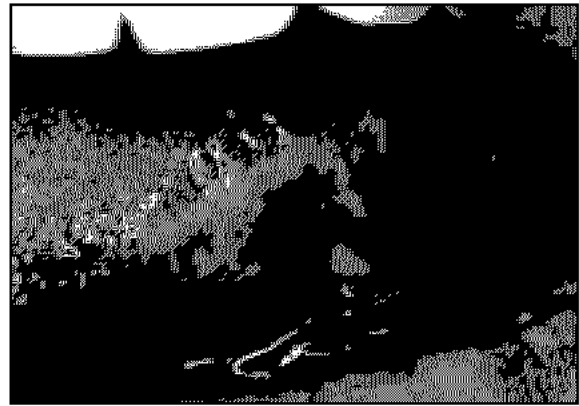
아말감은 수은과 다른 금속의 합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치과영역에서 165년 이상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수복재이다. 하지만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치과용 아말감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질환을 유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1993년 US Health Science의 보고에서도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을 규제할 만한 어떤 자료도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은에 의한 면역 반응 유발에 의해 아말감 수복물이 구강점막에 접촉함으로써 점막병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몇몇 중배 및 연구가 있어 왔다. 본 중배에서는 아말감 접촉에 의하여 혀에 점막 병소가 나타난 경우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임상증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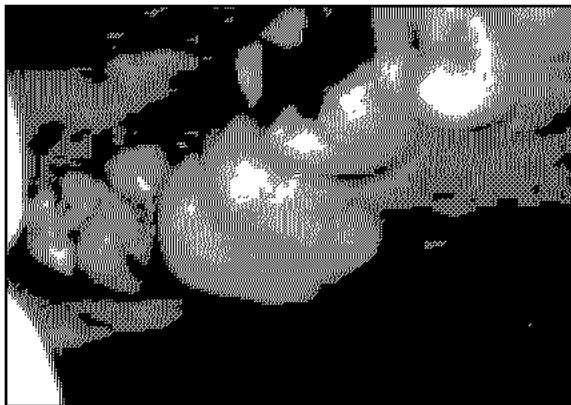
- 나이/성별 : 45세/여자
- 주 소 : 왼쪽 혀가 아프다. 피곤할 때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지고, 최근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 전신병력 : 폐결핵 (25년전, 완치됨)
자궁근종절제술 (3년전, 본원 산부인과)
- 치과병력 : 10여년전 개인치과의원에서 #37 아말감 수복
그 이후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0여년전부터 몸이 피곤할 때마다 왼쪽 혀의 측면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오라메디를 발라주면 증상이 개선되곤 했으나, 1~2개월전부터는 약을 발라도 증상이 계속되어 98년 9월 본원 구강내과 내원
임상 및 방사선 검사, 조직생검, 혈액화학 검사, 뇨화학 검사 후 외상성 궤양으로 진단. #37 발치 후 보철계획 수립. 환자분은 발치에 대한 거부감으로 더 이상 내원하지 않음
이후 지속적인 경미한 통증이 있었으나 계속 견디다가 1~2개월전부터 다시 통증이 심해져서 본원 구강악안면외과 내원 후 #37의 이차 우식 및 전반적인 치아 평가를 위해 보존과에 의뢰됨
- 진 단 : Secondary dental caries on #37
Traumatic ulcer, tongue, lateral side, Lt
R/O) Amalgam allergy
- 치료계획 : 이차 우식 및 기존 아말감 수복물의 제거 후 레진 수복
- 치료내용 및 경과 :
03.12. 3. 기존 아말감 수복물 및 이차 우식 제거
IRM®으로 임시충전 시행
04. 1. 6. 레진 수복 시행, Skin patch test 시행
3. 27. 3개월 소환조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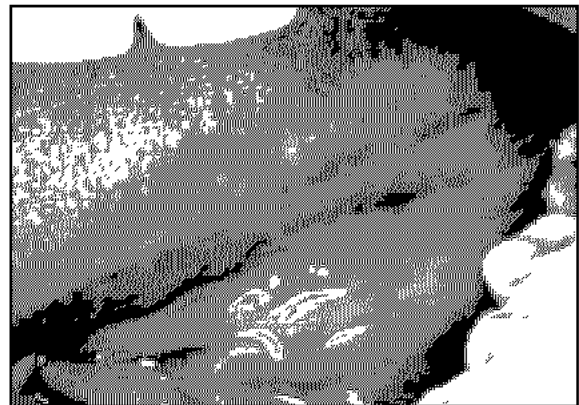
초진 방사선사진



초진 임상사진



레진 수복



술후 3개월 후

Ⅲ. 결 론

치과용 아말감 수복재는 역사적, 임상적, 과학적으로 그 안정성이 입증된 재료이다. 하지만 아말감의 구강점막과의 접촉시 oral lichen planus 또는 oral lichenoid reaction을 일으킨다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본 증례에서도 임상 검사 및 skin test, 조직생검, 수복물 교체를 통하여 아말감 접촉에 의한 점막병소임을 진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말감의 접촉에 의한 점막병소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